



왜승마 / *Cimicifuga japonica* (Thunb.) Spreng.

---

구분	설명
생물분류	식물
속국명	노루삼속
과국명	미나리아재비과
과명	Ranunculaceae
일반특징	<p>요약설명 :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로 제주도 및 거제도에서 자란다. 분포지역 : 제주도 및 거제도에서 자란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크기 : 높이 60-80cm 꽃색 : 백색 개화기 : 8월, 7월 뿌리에서 난 잎은 잎자루가 길고 1~2회 삼출겹잎이다. 작은 잎은 넓은 달걀 모양 또는 둥근 심장 모양이다. 가장자리는 손바닥 모양처럼 얇게 갈라지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잎의 밑부분은 심장 모양이다. 뒷면 맥 위에 털이 있다. 꽃은 7~8월에 하얀색으로 피고 겹총상꽃차례에 달린다. 이때, 겹총상꽃차례는 꽃줄기가 둘 이상 갈라지며 마지막 가지에서 각각 총상꽃차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꽃차례는 밑부분이 갈라지며 짧은 털이 있다. 꽃자루는 없다. 꽃받침조각은 5개이고 일찍 떨어진다. 꽃잎은 2개로 깊게 갈라진다. 수술은 많으며 수술대는 실처럼 생겼다. 꽃가루주머니는 넓은 타원 모양이고 암술을 이루는 잎 모양 구조는 1~2개이며 털이 없다. 암술은 1~2개이고 씨방은 좁고 길다. 열매는 골돌과고 1~2개이며 긴 타원 모양이다. 줄기는 꽃대 같으며 잎이 달리지 않는다. 산지의 골짜기 냇가나 나무 밑에서 자란다.</p>